

전남대, 일본 대학들과 교류 활성화

오사카 지역 대학·교육원 학술교류 한일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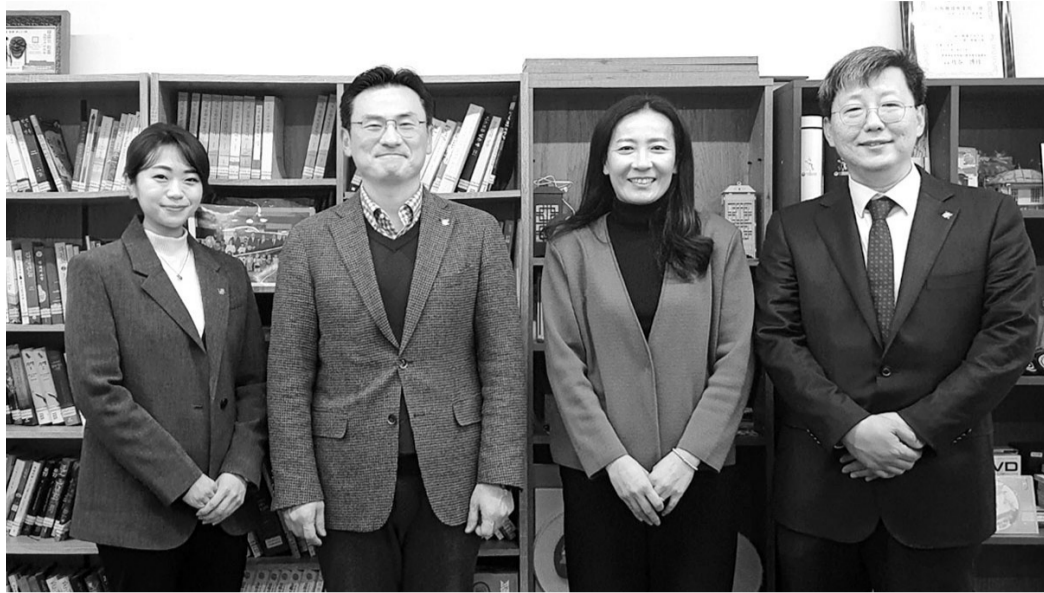
전남대학교가 일본 오사카 지역 대학과 교류에 나서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다지고 있다.

4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글로벌대외협력처(처장 국민석·글로벌대외협력처)는 최근 일본 오사카 지역 대학과 오사카 한국교육원, 오사카총영사관 및 국제학교 방문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글로벌대외협력처는 이번 방문에서 오사카대학교와 오사카공립대학, 간사이대학 국제교류 관계자들과 교환학생 정원 확대,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전남대에서 선정된 국립국제교육원의 '2024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학부 단계사업'에 해당 대학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도 논의했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학부 단계사업'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사업이다. 한일 양국간 우호증진과 인재양성을 위해 일본 학생이 한국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뿐만 아니라, 전공학과에 기반한 전문분야를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대에서는 글로벌대외협력처와 AI융합대학을 중심으로 AI와 공학 분야의 일본 대학생 22명을 대상으로 1억 10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오는 8월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프로그램을 진행



국민석(맨 오른쪽) 전남대 글로벌대외협력처장 일행이 일본 오사카 한국교육원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한다. AI융합 특화 단계교육 과정과 맞춤형 실험 실습 교육, 기관탐방, 한국어특강 등 이론과 실습, 문화체험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국민석 글로벌대외협력처장 일행은 또한 오사카한국교육원과 오사카총영사관 관계자 등과 만나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Study Korea 300K Project'의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논의했다.

재외한국학교인 오사카금강학교도 방문해 관계

자들과 교류협력 강화,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해 협의했다.

국민석 글로벌대외협력처장은 "이번 방문에서 오사카지역 대학생들의 한류열풍은 물론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 글로벌 인재육성 대학으로서 전남대학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며 "오사카 지역을 포함한 일본 주요 대학들과 지속적인 교류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공사장 가설 방음벽에 '전남교육 이미지' 담는다

전남교육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등 주요 정책 홍보 창구 활용

전남교육청이 학교 공사 현장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 가설 방음벽을 시범 설치했다.

가설 방음벽은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중 소음·분진 등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벽이다.

전남교육청은 이 가설 방음벽에 '전남교육 브랜드' 캐릭터인 미래와 창조를 활용해 디자인했다. 현재 순천조례초교와 전남미래자동차 교육공사 현장에 설치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 가설 방음벽은 '안전' 메시지를 담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제작됐으며, 귀여운 캐릭터가 돋보여 삭막한 공사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또 가설 방음벽에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홍보를 비롯한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해 효율성을 높였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 이야기와 학생 작품 갤러리, 전남교육 브랜드 홍보 등의 내용으로 채워갈 예정이어서 그동안 유희 벽면으로



순천조례초등학교 공사현장에 디자인 가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전남교육청 제공>

설치됐던 가설 방음벽의 변신을 기대하고 있다.

김종훈 전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공사장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 방음벽에 다양한 디자인을 담아 공사장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장 미관 개선에서 나아가 전남교육 이미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송원대 철도관제교육센터, 제4기 교육생 수료식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철도관제교육센터가 제4기 교육생을 배출했다.

송원대는 최근 학교 철도관제센터실에서 제4기 교육생 수료식을 열었다. 최수태 총장, 권태삼 철도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해 본부처장, 수료생 20명이 참석했다.

제4기 수료생들은 10주 364시간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철도대학 재학생 및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들이다.

송원대는 수료식에서 교육기간 성적우수자와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에게 공로상을 줬다.

최수태 총장은 축사에서 "철도교통관제사는 철도차량의 운영을 제어·통제·감시하는 등 철도교통 전체를 관장(Control)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라면서 "수료생들이 대한민국 철도 발전에 이바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태삼 철도아카데미 원장은 "2027년에 제2철도관제센터가 완성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향후 철도교통관제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며 "수료생들이 철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 달라"고 당부했다.

송원대학교 철도대학은 1996년 사립대학 최초 철도경영학과를 개설해 27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의 '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대학(철도특성화) 부문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송원대는 철도운전경영학과, 철도운전시스템학과, 철도안전관리시스템학과, 철도차량전기시스템학과 등 4개 학과를 두고 있다. 철도기관사와 관제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송원철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신입생 입학식 토크콘서트... 교수·총장 축하공연

근악대 연주 속 신입생 입장 선사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4일 동신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신입생, 교직원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은 상무대 근무지원단 근악대의 연주와 구성원들의 환호 속에 입장해, 총장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신입생선서를 했다.

동신대는 MZ세대 취향에 맞는 환영 행사를 위해 격식을 탈피하고 공연과 토크콘서트 형식의 입학식을 준비해 호응을 얻었다.

공연예술무용학과 재학생들이 멋진 무대를 선사했고, 동신대 교수들과 이주희 총장이 환영의 마음을 담은 공연을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에서는 신입생들이 이주희 총장에게 슬기로운 대학 생활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질문과 다양한 제안을 했고 이주희 총장이 화답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운병대 나주시장과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해 동신대학교의 인재이자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신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주희(가운데) 동신대 총장이 동신대 교직원들과 신입생 환영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동신대 제공>

행사장 밖에서는 총학생회가 무료 팝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총동아리연합회가 동아리 홍보활동을 펼쳤다. 비교과교육지원센터는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친원의 아침밥상 1천200여 개를 나눠주며 대학 생활 첫발을 떼는 신입생들을 응원했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나를 키워주는 대학, 착한 인재로 세상을 바꾼다,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 이 네 가지가 신입생들

을 성장시켜 줄 대학의 모토"라고 소개하고 "입장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시절을 맞이한 신입생들이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지역사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파민 가득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신대에는 학부생 1386명, 대학원생 408명 등 1794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 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가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가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가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